정신문화연구 2008 겨울호 제31권 제4호(통권 113호) pp. 195~227.

研究論文

한국인에게 아름다움은 무엇인가*

최 봉 영**

Ⅰ. 왜 아름다움인가?
Ⅱ. 아름과 다움
Ⅲ. 아름다움
Ⅳ. 맛과 멋
Ⅴ. 어울림
Ⅵ.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Ⅰ. 왜 아름다움인가?

한국인은 어떤 것이 잘 어울리는 상태에 있을 때, '아름답다'라고 말한다. 한국인은 아름다움에 이끌리는 까닭에 아름다운 얼굴, 아름다운 몸매, 아름다운 마음, 아름다운 옷, 아름다운 집,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세상 등을 바란다. 이 때문에 한국인은 바라는 바를 겉으로 드러낼 때, '아름다움', '아름다운', '아름답다', '아름답게'와 같은 낱말을 많이 사용한다.

한국인은 아름다움에 이끌려 몸, 마음, 얼굴, 옷, 집, 삶, 세상 등이 아름다운 상태에 있기를 바라지만 정작 아름다움이 무엇을 뜻하는지 묻고 따지는 일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미학을 전공하는 학자들조차 한국어 속에서 이러한 낱말들이 어떻게 엮여있는지 정밀하게 따져보지 않은 상태에서 '아름다운 것은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말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 때문에 이들은 주로 외국어에 바탕을 둔

* 이 논문은 2007년도 한국항공대학교 교비지원연구비에 의하여 지원된 연구의 결과임.
** 한국항공대학교 교수, 한국학 전공(bychoi@kau.ac.kr).

‘美’, ‘beauty’, ‘aesthetics’ 등에 비추어 아름다움을 설명하고 있다. 한국어에서 아름다움은 ‘아름’과 ‘다움’이 합쳐서 이루어진 낱말이다. 아름과 다움을 둘러싸고 있는 맛, 멋, 떨림, 울림, 낱, 모두, 어울림, 그위 등이 엮여서 아름다움의 뜻을 만든다.

이 글은 아름과 다움을 둘러싸고 있는 맛, 멋, 떨림, 울림, 낱, 모두, 어울림, 그위 등을 분석하여 한국인에게 아름다움이 무엇을 뜻하는지 밝히고 있다. 이로써 아름다움은 개체인 아름이 떨림과 울림을 통해서 안팎으로 잘 어울려 있는 상태에 이르렀음을 뜻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사적인 존재인 ‘나’가 어울림을 통해서 공적인 존재인 ‘우리’가 되는 일이 아름다움임을 말한다. 낱낱의 ‘나’가 중요한 것은 어울림을 통해서 ‘우리’를 이루어나가는 바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나’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반드시 ‘우리’로 나아가 더욱 ‘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한국인이 ‘클 德’, ‘클 仁’, ‘클 義’로 말해온 ‘큰 사람’이 되는 길이다.[1)]

II. 아름과 다움

1. 아름

오늘날 한국인이 일상으로 말하는 아름은 ‘한 아름’, ‘두 아름’ 등으로 말하는 아름이다. 아름은 어떤 것의 둘레 또는 그것에 해당하는 묶음의 숫자를 헤아리는 기준으로 사용되는 낱말이다. 즉 아름은 사람이 두 팔을 벌려서 어떤 것을 껴안았을 때, 안쪽에 포함되는 둘레의 크기를 말한다. 사람들은 어떤 것이 한 아름에 꼭 드는 크기일 때, ‘아름드리=아름들+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사람마다 몸통과 팔의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아름의 크기 또한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 어른에 비해 아이는 몸집이 작기 때문에 아름 또한 작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어른이라도 몸집에 따라 아름이 큰 사람과 작은 사람으로 나뉜다. 따라서 한국인이 아름으로 크기나 수량을 헤아릴 때는, 누구를 기준으로 삼는지 알아야 그것의 구체적인 내용을 헤아릴 수 있다.

1) 德, 仁, 義를 『光州 千字文』에는 ‘큰 德’, ‘클 仁’, ‘클 義’로 새기고 있고, 『石峯 千字文』에는 ‘큰 德’, ‘클 仁’, ‘올흘 義’로 새기고 있다.

한국인이 아름처럼 개인의 신체를 기준으로 크기나 수량을 헤아리는 것에는 길, 발, 뼘, 마디, 움큼 등이 있다. 길은 사람이 반듯하게 선 상태에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의 길이를 말하고, 발은 사람이 두 팔을 반듯하게 편 상태에서 이쪽 손끝에서 저쪽 손끝까지의 길이를 말한다. 길과 발은 아름처럼 사람이 신체를 최대한으로 펼친 상태에서 크기나 수량을 헤아리는 단위이다. 한편 뼘과 마디와 움큼은 신체의 일부인 손을 기준으로 크기나 수량을 헤아리는 단위를 말한다. 뼘은 손바닥을 반듯하게 편 상태에서 엄지의 끝에서 중지의 끝에 이르는 길이를 말하고, 마디는 손가락의 한 마디를 말하고, 움큼은 손바닥을 오므려서 담을 수 있는 양을 말한다. 그런데 사람마다 몸통, 머리, 목, 다리, 팔, 손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길, 발, 뼘, 마디, 움큼의 크기 또한 달라진다.

한국인에게 아름, 길, 발은 '나'의 개별성을 바탕으로 삼는다. 한국인은 이러한 개별성을 기준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나름'이라고 말한다. 한국인이 '나름대로 잘 한다', '생각하기 나름이다' 등에서 말하는 '나름'은 '나'의 개별성에 기준을 두고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한국인은 이러한 '나름'이 개체로 닫혀져 있음을 강조할 때 '따름'이라고 말한다. '~일 따름이다', '~할 따름이다'에서 '따름'은 '나름'이 개체로 닫혀져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2)]

한국인은 '나'의 개별성에 바탕을 둔 아름, 길, 발과 달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公共의 기준을 자, 되, 저울 등으로 부른다. 자는 길이, 되는 부피, 저울은 무게를 재는 공공의 기준이다. 이것들은 동일한 형식을 바탕으로 크기의 단위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공동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한국인은 어떤 것의 크기나 수량 등을 헤아릴 때 두 가지 기준, 즉 '낱낱'의 개별성에 바탕을 둔 기준과 '모두'의 공공성에 바탕을 둔 기준을 함께 사용한다.

오늘날 한국인이 '아름답다', '아름답게', '아름다운', '아름다움'에서 말하는 '아름'은 한 아름, 두 아름에서 말하는 아름과 뿌리를 함께하고 있다. 옛말에서 한 아름, 두 아름의 아름은 아름이나 아놈으로, 아름다움의 아름은 아름이나 아름으로

2) 오늘날 쓰이는 '따로'는 동사인 '따다와 '닫다'에 바탕을 두고 있다. '따다'의 옛말인 'ᄯᅡ다', 'ᄠᅡ다'에 바탕을 둔 'ᄯᅡ로', 'ᄠᅡ로'가 '따로'의 뜻으로 쓰이는 동시에 '닫다'의 피동형인 '닫히다'의 옛말인 '다티다'에 바탕을 둔 '닫티', '다티', '닷티'가 '따로'의 뜻으로 쓰였다. 한글학회(편), 『우리말 큰사전(4)』(어문각, 1992), <옛말과 이두> 편, 'ᄯᅡ다', 'ᄠᅡ다', 'ᄯᅡ로', 'ᄠᅡ로', '다티다', '닫티', '다티', '닷티' 항목 참고.

표기하였다. '아름'과 '아놈'은 '두 팔을 벌려서 품에 안을 때 생기는 둥근 모양'과 연결되어 있으며, '아름'과 '아롬'은 '둥근 모양으로 닫혀 있는 낱낱의 것'과 연관되어 있다. '아름다움'에서 말하는 '아름'은 '아놈'과 '아롬'의 성격을 아울러 갖는 낱말이라고 할 수 있다.

옛말에서 아름은 아롬과 더불어 '私'또는 '私事'를 뜻하였다. 吏讀에는 '私事로이'를 '私丁', '私音丁'으로 쓰고 '아람져', '아롬뎌'로 읽었다.[3] 또한 『신증유합』에서는 '私'를 '아롬 私'로 새기고 있다. 옛사람들은 '私有物'을 '아롬 것', '私室'을 '아롬 집', '私事'를 '아롬 일', '私意'를 '아롬 뜯'으로 일컬었다. 이때 '아름'은 자신의 느낌이나 앎을 기준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개별 주체를 말한다. 그런데 한문지식인들이 아름이라는 낱말보다 '私', '私事', '私事롭다'를 즐겨 쓰게 되면서, 개별 주체를 뜻하는 아름은 점차 쓰이지 않게 되었다.

'아름답다'에서 '아름'은 '알'과 '음'을 합친 것을 이어서 소리 낸 낱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알'은 '알', '씨알', '알맹이' 등에서 볼 수 있듯이 특정한 범주에 속하는 낱낱의 개체를 말한다. 사람들은 이러한 알을 바탕으로 '포도가 알알이 영글었다', '포도가 알차게 열었다', '포도가 알맞게 익었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아름'에서 '음'은 개체가 지니고 있는 속성을 가리키는 명사형 토씨에 해당한다. 이러한 '음'은 나름, 따름, 이름, 노름 등에서도 동일하게 쓰이고 있다.

'아름답다'처럼 '알'에 바탕을 두면서 뜻도 비슷한 낱말로 '아리땁다'가 있다. '아리땁다'의 옛말은 '아ᄅᆞᆺ답다', '아ᄅᆡᆺ답다', '알이답다'이다. '아ᄅᆞᆺ답다', '아ᄅᆡᆺ답다', '알이답다'는 '알ᄋᆞ/알이'와 '답다'를 합친 낱말로서 '알이 알다운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4] '아리땁다'는 주로 '嬌'로 새겼는데, 밖으로 드러난 생김새나 꾸밈새가 아름다운 상태를 뜻한다.

한국인이 '아름'을 '私'나 '私事'로 새길 때, 아름은 대략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뜻을 담고 있다.

첫째, 아름은 '나'라는 특정한 개체를 기준으로 어떤 것을 헤아림을 뜻한다. 즉 우리가 어떤 것을 한 아름, 두 아름으로 헤아리는 것은 특정한 개체인 '나'의 아름을 기준으로 크기나 수량을 헤아리는 것을 말한다.

---

3) 위의 책, <옛말과 이두> 편 '아람져', '아롬뎌' 항목 참고.
4) 위의 책, <옛말과 이두> 편 '아ᄅᆞᆺ답다', '아ᄅᆡᆺ답다', '아리답다' 항목 참고.

둘째, 아름은 '나의 것'이라는 지님의 뜻을 갖고 있다. 즉 아름은 '내가 끌어안고 있는 것'으로서 내가 어떤 것을 품에 지니고 있음을 뜻한다. 사람들은 흔히 어떤 것이 나의 것임을 보이고자 할 때, 두 팔로 끌어안는 시늉을 한다. 이러한 아름은 사람이 어떤 것을 지니게 되는 출발점을 이룬다.

셋째, 아름은 헤아리고 지니는 주체인 '나'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개별 영역'을 뜻한다. 이때 아름은 낱낱에 바탕을 둔 '私'로서 모두에 바탕을 둔 '公'과 맞선다. '公'은 낱낱의 아름을 넘어서 '그 위에 위치한 공공 영역'이 된다. 이런 까닭에 옛사람들은 '公'을 '그위 公'으로 새겼다.[5]

2. 다움

한국어에서 '답다'는 '사람답다', '남자답다', '부모답다', '꽃답다', '아름답다'처럼 사람, 남자, 부모, 꽃, 아름 등과 같은 명사에 붙어서 그것이 가장 좋은 상태에 놓여 있음을 나타낸다. 즉, 한국인은 사람, 남자, 부모, 꽃, 아름처럼 어떤 것을 범주로 묶을 수 있을 때, 그것이 가장 좋은 상태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답다'라는 토씨를 붙여서 '~답다'라고 말한다.

한국인이 '사람답다', '남자답다', '부모답다', '꽃답다'라고 말할 때 사람, 남자, 부모, 꽃은 자신의 힘을 바탕으로 '~다움'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가능성의 주체를 말한다. 주체가 가능성을 온전하게 실현하여 '~다운 상태'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두고 '~답다'라고 말한다. 반면에 한국인은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다움'에 이를 수 없는 것들, 즉 산, 바위, 집 등에 대해서는 '산답다', '바위답다', '집답다'와 같이 말하지 않고, '산이 아름답다', '바위가 아름답다', '집이 아름답다'라고 말한다. 산, 바위, 집이 아름다운 것은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아름다워진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조건들이 어울려 그렇게 된 것임을 말한다.

한국어에서 '답다'라는 형용 어미는 '다하다'라는 동사에 뿌리를 두고 있다.[6] '다하다'는 모두를 뜻하는 '다'와 함을 뜻하는 '하다'가 합쳐진 낱말로서 '모두 함'

5) 위의 책, <옛말과 이두> 편 '그위' 항목 참고.

6) '답다'는 '다하다'를 뜻하는 동사 '다ᄋᆞ다'/'다으다'/'다아다'와 연관되어 있고, '답게'를 뜻하는 형용사 '다', '다비', '다이'와 연관되어 있다. 위의 책, <옛말과 이두> 편 '답다' 항목 참고.

을 뜻한다. 곧, '힘을 다하다', '마음을 다하다'에서 '다하다'는 '있는 것을 모두 함으로써 더 이상 남아 있지 않음'을 뜻한다. 이러한 '다하다'는 한자 낱말 '盡'과 짝을 이루어 '힘을 다하다(盡力)', '마음을 다하다(盡心)', '충성을 다하다(盡忠)' 등으로 쓰인다. 이러한 '다하다'를 바탕으로 '어떤 것을 모두 다하여 같아진 상태에 이른 것'을 뜻하는 '답다', '답ᄇᆡ', '닿다', '다히' 등이 쓰이게 되었다.[7]

'답다'는 '다하는 것' 가운데서 오로지 '본디의 성질을 다한 상태'만을 말한다.[8] 이런 까닭에 사람들이 '다움'에 대한 느낌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본디의 성질'을 전제해야 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본디의 성질을 다하고 싶은 욕망'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본디의 성질을 전제하지 않거나 또는 않으려는 것들, 즉 거지, 쓰레기, 강도 등에 대해서는 '거지답다', '쓰레기답다', '강도답다' 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따라서 사람이 말을 배워서 '본디의 성질'에 대한 개념을 형성하기 이전에는 다움에 대한 욕망이 생겨날 수 없고, 따라서 다움에 대한 느낌 또한 가질 수 없다. 개와 같은 경우에는 말을 배울 수 없어서 '본디의 성질'에 대한 개념을 형성할 수 없기 때문에 다만 '좋음'과 '나쁨'에 대한 느낌만을 가질 수 있을 뿐이다.

한국인에게 '~답다'는 본디의 성질을 다한 상태로서 좋음의 뜻을 지닌다. 예컨대 사람들이 '芳年'을 '꽃다운 나이'라고 새기는 것은 '꽃과 같은 좋은 나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이런 까닭에 한국인은 '~다운' 상태에 가까이 다가가 비슷해지는 것을 좋은 것으로 여긴다. 이러한 것을 잘 드러내는 낱말이 '근사하다', '이슷하다'와 같은 낱말이다. 사람들이 '이것은 근사하다'고 말하는 것은 '이것이 본디의 성질에 가깝거나(近) 비슷하기(似) 때문에 좋은 상태에 있음'을 뜻한다. 그리고 옛말에서 '이슷ᄒᆞ다', '이셧ᄒᆞ다', '이셧다'는 '비슷하다'를 뜻했는데, '이슷ᄒᆞ/이셧ᄒᆞ/이셧'의 '이'에 바탕을 둔 '이대'는 '잘'이나 '좋이'를 뜻했고, '이로이'는 '족히'를 뜻했다.[9]

---

7) 위의 책, <옛말과 이두> 편 '답다', '답ᄇᆡ', '닿다', '다히' 항목 참고.

8) 우리는 '같다'와 '답다'와 '닮다'의 차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같다'는 나누어져 있는 이것과 저것이 서로 같은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답다'는 하나인 어떤 것이 본디의 성질을 다한 상태에 놓여있음을 말하고, '닮다'는 나누어져 있는 이것과 저것이 물드는 과정을 통해서 이것 또는 저것과 같아지거나 비슷해짐을 말한다. 옛말에서는 '닮다'는 '덞다'로 '물드는 것'을 뜻했다. 위의 책, <옛말과 이두> 편, '같다', '답다', '닮다', '덞다' 항목 참조.

9) 위의 책, <옛말과 이두> 편 '이슷ᄒᆞ다', '이셧ᄒᆞ다', '이셧다', '이대', '이로이' 항목 참고.

한국인이 '다움', '이슷함', '근사함'을 모두 '좋음'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물이 갖고 있는 '본디의 성질', 즉 본성이나 본질을 착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한국인은 본성이나 본질을 착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같거나 가깝고 비슷한 상태로 나아가는 것을 곧 좋은 상태로 나아가는 것으로 생각한다.

3. 다움에 대한 욕망

사람은 생각하는 힘을 갖고 있는 까닭에 지각하는 마음에 바탕을 두고 있는 욕구를 문장을 통해서 욕망으로 전환하여 생성하고 실현한다.[10] 이로써 사람은 배가 고프면 그저 무엇이나 먹으면 되는 자연 상태를 벗어나 밥을 지어서 그릇에 담아 밥상을 차려서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문화 상태로 넘어가게 된다. 이 때문에 사람은 밥이 아니면 먹지 않고, 밥이라도 그릇에 담기지 않으면 먹지 않고, 그릇에 담기더라도 밥상에 제대로 차려지지 않으면 먹지 않는 일을 벌일 수 있게 된다.

사람은 생각하는 힘을 바탕으로 갖가지 문장으로 온갖 욕망을 꾸며내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정교한 기술들을 개발하여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의 문화를 이룩해왔다. 오늘날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욕망의 대상으로 끌어들여 문화로 삼켜버리는 까닭에 자연이 자연으로 남아 있기 어려운 문화만능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런 까닭에 사람이 지극히 유한한 능력과 자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욕망을 무한으로 부풀려 완전한 실현, 무궁한 발전, 무한한 행복 등을 일상으로 꿈꾸며 살아간다.

한국인이 생성하고 실현하는 욕망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즉 하고 싶음, 되고 싶음, 답고 싶음이다.

첫째, 하고 싶음에서 주체는 낱낱의 행위에서 얻는 재미를 목적으로 삼는다. 이때 주체는 재미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을 찾는다. 낱낱의 행위를 넘어서는 더 이상의 목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주체는 하고 싶은 대로 할 뿐이다. 예컨대 영아나 유아가 행위 그 자체에 몰두해 있을 때, 흔히 볼 수 있다. 주체는 낱낱의 행위를 기준으로 삼아서 하고 싶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는다.

둘째, 되고 싶음에서 주체는 어떤 것을 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어떤 것이 되

10) 최봉영, 『주체와 욕망』(사계절, 2000), 74~75쪽 참조.

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즉, 주체는 사람, 부모, 형, 학생, 과장, 사장 등과 같은 사회적 자격을 가짐으로써 부모, 형, 학생, 과장, 사장 등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이런 까닭에 주체는 사회적 자격을 가질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다. 이 때문에 주체는 되는 것에 이끌림으로써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방법으로 사회적 자격을 가지려는 모순에 빠지기도 한다. 주체는 되고 싶음을 이루기 위해서 낱낱의 행위들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관리하게 된다. 주체는 되고 싶음을 이루기 위해서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셋째, 답고 싶음에서 주체는 어떤 것이 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나'라는 존재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이를 위해서 주체는 존재가 무엇인지 알아내야 하고, 그것의 실현에 필요한 바람직한 방법을 찾고 따라야 한다. 주체가 부모, 형, 학생, 과장, 사장 등이 되는 것은 존재를 존재답게 이루는 과정의 일부일 때에만 타당성을 갖는다. 이런 까닭에 주체가 존재를 실현해나가는 일은 목표와 방법에서 매우 제한되어 있다. 주체는 존재를 존재답게 실현할 수 있도록 낱낱의 행위들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관리하게 된다. 주체는 답고 싶음을 이루기 위해서 하고 싶은 일은 물론이고, 되고 싶은 일까지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사람이 답고 싶음에 대한 욕망을 갖는 것은 문장을 통해서 '보다 좋은 상태'나 '더욱 나은 상태'를 꿈꿀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사람은 눈앞에 놓인 '이것'을 넘어서 '더욱 좋은 것', '더욱 나은 것'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에 생각이 미칠 수 있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본디의 성질을 완전히 다한 상태를 꿈꿀 수 있다. 사람은 이러한 이상적 상태를 꿈꾸면서 그것에 대한 모자람을 충족하기 위해서 다움에 대한 욕망을 생성하고 실현하게 된다.

사람이 '본디의 성질을 완전히 다한 상태'를 지향하게 되면 '밖으로 드러나 있는 온갖 것들'의 바탕에 놓여 있는 존재 그 자체에 관심을 갖게 된다. 사람은 존재로부터 본디의 성질을 이끌어내고, 이를 바탕으로 본디의 성질을 다한 상태로 나아가고자 한다. 따라서 완전, 무궁, 무한, 존재, 본질 등에 대해 관심이 없는 사람은 다움에 대한 욕망 또한 생겨나지 않는다.

다움은 문장을 통해서 생성되고 실현되는 욕망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문장에 대한 태도에 따라 다움에 대한 욕망 또한 크게 달라진다. 예컨대 어떤 사람은 다움에 대한 욕망이 매우 강한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매우 약하다. 경우에 따라서 다

움에 대한 욕망을 아예 가질 수 없는 사람도 있고, 가질 수는 있지만 아예 포기해 버린 사람도 있다. 다움에 대한 욕망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경우에는 전혀 사람답지 않은 일을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저지를 수 있다.

한편 우리가 다움에 대한 욕망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다움에 대한 욕망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러한 욕망을 적극적으로 끌어내고 이루어나가야 한다.

다움에 대한 욕망은 주체가 현상의 바탕에 놓여 있는 존재의 본모습으로 나아가 그것과 같아지고자 하는 욕망을 말한다. 따라서 주체는 끊임없이 존재의 본모습을 탐구하고 실천하고자 한다. 이 때문에 다움을 추구하는 주체는 알아내고 알아주고 알아하는 과정을 통해 앎과 함을 쌓음으로써 나날이 더욱 큰 사람으로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한국인이 예부터 德을 '클 德'으로 새겨온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사람이 덕을 쌓는 일은 다움을 추구하는 일로서 깨달음과 어짊을 통해서 나날이 더욱 큰 사람으로 나아감을 뜻한다. 이러한 사람이 이루고자 하는 욕망은 나라는 존재를 나답도록 만드는 일, 즉 나다움을 실현하는 일에 초점이 놓여 있다.

다움에 대한 욕망은 본디의 성질을 바탕으로 순수하고 완전한 상태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상태와 심각히 부딪힐 수 있다. 먼저 개인의 차원에서 다움에 대한 욕망은 하고 싶음이나 되고 싶음에 대한 욕망과 부딪쳐 여러 가지 문제를 낳을 수 있다. 또한 개인과 개인, 개인과 집단, 집단과 집단이 다움에 대한 욕망을 추구하면서 그것의 내용, 과정, 결과를 놓고 서로 부딪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다움에 대한 욕망에 이끌리는 경우에 그것이 독선과 교조로 흘러서 자신 또는 다른 사람과 심하게 갈등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다움에 대한 욕망이 도리어 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 역사적으로 집단들이 갖고 있는 다움에 대한 욕망이 서로 부딪혀 많은 갈등을 불러왔다.

한국인은 일찍부터 '하고 싶음'과 '되고 싶음'과 '답고 싶음'의 틀을 바탕으로 다움에 대한 욕망을 정교한 방식으로 가꾸어 왔다. 예컨대 『논어』에서 공자가 '君君臣臣, 父父子子'라고 거칠게 말한 것을 한국인은 다움에 대한 욕망에 기초하여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다우며,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자녀는 자녀다운 것'으로 정밀하게 새겨왔다.[11] 한국인은 마음에 다움에 대한 욕망이 강하게 자리하고 있어서 '~다운'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엄격하게 구분하려고 한다. 한국인에서 볼

수 있는 순수, 결백, 격정, 신명 등은 다움에 대한 욕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한국인의 다움에 대한 욕망은 '본과 보기의 구조'에 잘 드러나 있다.[12] 한국인은 사물의 바탕에 놓여 있는 본디의 성질을 '본'으로, '본'이 만남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난 현상을 '보기'로, '본'이 완전하게 '보기'로 드러난 모습을 '본보기'로 말한다. 이때 본보기는 본디의 성질이 완전하게 현상으로 드러난 '~다운 상태'를 말하고, '본을 보이는 것'은 '~다운 상태'를 보여주는 것을 말하고, '본을 보는 것'은 '~다운 상태'를 따르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한국인에게 아름다움은 본디의 성질이 완전하게 현상으로 드러나 있는 가장 좋은 상태를 말한다.

'~다운' 상태를 바라는 사람들은 본디의 성질이 완전하게 현상으로 드러나 있는 본보기를 찾아서 길잡이로 삼으려 한다. 이 때문에 다움에 대한 욕망을 추구하는 일에서 본보기는 욕망이 지향하는 구체적 길잡이로서 매우 중요한다. 한국인이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흔히 '본이 되어라', '본을 보여라', '본을 봐라', '본을 받아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한국인이 '본'을 바탕으로 '~답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전제를 깔고 있다.

첫째, 한국인이 '~답다'라고 말할 때, '~'이 본디의 성질을 갖고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이는 한국인이 '본디의 성질을 바탕으로' 또는 '본디의 성질에 비추어' 사물을 바라보는 것을 말한다.

둘째, 한국인이 '~답다'라고 말할 때, '~'가 갖고 있는 본디의 성질이 바람직한 것임을 전제하고 있다. 이는 한국인이 사물이 갖고 있는 본디의 성질을 착한 것으로 믿고 있음을 말한다.

셋째, 한국인이 '~답다'라고 말할 때, '~'가 갖고 있는 본디의 성질이 완전하게

---

11) '君君臣臣 父父子子'는 『논어』, 권12, <顔淵> 편에 나오는 구절이다. 선조 때에 나온 『논어언해』에는 이 구절을 "君은 君ᄒᆞ며, 臣은 臣ᄒᆞ며, 父는 父ᄒᆞ며, 子는 子ᄒᆞᆷ"으로 풀이하고 있다. 君과 君ᄒᆞᆷ에 쓰인 ᄒᆞᆷ은 공경과 공경ᄒᆞᆷ에 쓰인 ᄒᆞᆷ과 같다. 君ᄒᆞᆷ은 임금의 본질에 일치하는 어떤 것, 恭敬ᄒᆞᆷ은 공경의 본질에 일치하는 어떤 것을 말한다. 이때 'ᄒᆞᆷ'은 '다움'과 같은 뜻으로 쓰이고 있다. 그런데 정철의 『송강가사』 성주본에 나오는 "ᄆᆞ양 우는 아히 ᄀᆞᆯ와 이 누고 뎌 누구 ᄒᆞ면 얼운답디 아네라"와 같은 구절을 통해 '어른답다'와 같은 용법이 이미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 '君君臣臣 父父子子'를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다우며,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아들은 아들답다"로 풀이하고 있다.

12) 최봉영, 『본과 보기 문화이론』(지식산업사, 2002) 참조.

밖으로 드러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이는 한국인이 본질과 현상의 완전한 일치가 가능함을 믿고 있음을 말한다. 단지 본디의 성질이 완전하게 드러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뿐이다.

'다움'의 바탕에 놓여 있는 '본과 보기의 구조'는 한국인이 가꾸어온 문화적 바람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한국인에게 문화는 다움의 바탕인 본을 밝혀서 본보기로 드러내는 일을 말한다. 따라서 한국인에게 문화를 가르치고 배우는 일은 가르치는 사람이 배우는 사람에게 '다움'에 대한 열망을 일깨우고 자라게 함으로써, 배우는 사람이 스스로 본을 밝혀서 보기로 드러내는 일을 배우고 익혀서 더욱 큰 사람으로 나아가고자 힘쓰도록 만드는 일을 말한다.

III. 아름다움

한국인은 '아름'과 '답다'를 합쳐서 '아름답다'라고 말한다. '아름답다'는 아름이 다움의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이는 사람들이 아름다움을 느끼기 위해서는 먼저 아름이 느낌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밖으로 드러나 있어야 함을 말한다. 아직 전혀 느낌의 대상으로 드러나 있지 않은 아름, 즉 아직 보거나 들은 적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아름답다'라는 말을 할 수 없다.

'아름답다'에서 '아름'은 단지 개체로 나뉘어 있음을 나타낼 뿐, 아직 어떠한 알맹이도 지니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아름은 낱낱으로 드러난 모든 것들, 즉 '사람', '바위', '마음', '솜씨', '본 것', '먹는 것', '말한 것' 등에 두루 적용될 수 있다. 이런 까닭에 한국인이 '아름답다'라고 말할 때는 언제나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개별 단위를 문장의 주어로 삼아서 '바위가 아름답다', '솜씨가 아름답다', '본 것이 아름답다', '말하는 것이 아름답다' 등의 형식으로 말한다.

한국인은 생각의 주체로서 아름이라는 대상을 만났을 때, 그것이 '~다운' 상태에 있다고 느끼면 '~이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그것에서 얻는 느낌을 '아름다움'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한국인이 말하는 아름다움은 주체와 대상의 만남에서 주체가 대상에서 얻는 느낌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런 까닭에 아름다움은 언제나 주체와 대상의 구체적인 만남과 느낌을 전제하고 있다.

한국인에게 아름다움은 주체와 대상의 만남에서 생겨나는 어울림의 과정과 결과에 바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주체와 대상이 만나서 어울리는 방식에 따라 아름다움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즉, 주체와 대상이 어떻게 만나고 어울리느냐에 따라 아름다움이 다르게 나타난다. 이 때문에 사람들이 아름다움을 느끼는 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울림에 대한 태도이다. 예컨대 어울림에 대한 태도에 따라 길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풀 한 포기를 두고서 어떤 사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느끼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아무런 아름다움도 느끼지 못한다. 이런 까닭에 주체는 만남과 어울림의 방식을 달리함으로써 아름다움에 대한 가능성을 여러 가지로 열어갈 수 있다.

주체가 본디의 성질을 말로써 완전하게 드러내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름다움을 말로써 완벽하게 규정하는 일 또한 불가능하다. 따라서 사람이 아름다움을 이루는 것은 본디의 성질을 더욱 잘 알고, 그것을 더욱 잘 실현하려는 열려 있는 마음을 바탕으로 삼는다. 아름다움은 주체가 열려 있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더욱 나은 상태로 나아가려는 욕망을 말한다.

주체가 아름다움을 찾아가는 일과 진리를 찾아가는 일은 느낌을 바탕으로 삼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말에 대한 태도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아름다움을 찾아가는 일은 말로써 느낌을 피워내는 일인 반면에 진리를 찾아가는 일은 느낌을 말에 담아내는 일이다. 이런 까닭에 주체가 느낌을 앎의 형식에 담아서 진리로 삼게 되면, 욕망의 세계를 넘어서 진리의 세계로 나아가게 된다. 이로써 마음 또한 열린 상태로 아름다움을 찾아가는 것에서 닫힌 상태로 진리를 따라가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 이런 점에서 욕망의 세계에서 열린 마음으로 느낌을 추구하는 아름다움과 진리의 세계에서 닫힌 마음으로 믿음을 실천하는 종교는 서로 길을 달리한다. 종교가 아름다움을 바탕에 둘 때, 열린 마음으로 모든 이들을 아우를 수 있게 된다.

한국인에게 아름다움은 주체와 대상이 만나서 어울리는 이곳과 이때를 바탕으로 삼다. 아름다움의 근거인 느낌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곳과 때가 바로 이곳과 이때이기 때문이다.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한 아름다움은 추억으로,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한 아름다움은 오로지 상상으로 존재하기에 이곳, 이때에 살아있는 생생한 느낌과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다. 이런 까닭에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곳, 이때에서 얻는 느낌을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긴다.

IV. 맛과 멋

1. 느낌과 맛

사람은 몸으로 느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 대상과 만날 수 있게 되며, 이를 바탕으로 느낌의 근거인 대상이 무엇인지 알아가게 된다. 사람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느낌의 원인, 과정, 결과에 대한 앎을 쌓아간다. 이 때문에 사람이 갖고 있는 앎에는 언제나 대상에 대한 느낌을 담고 있다.

한국인은 주체가 대상에서 얻은 느낌을 맛이라고 부른다. 즉 꿀맛, 돈맛, 살맛에서 꿀, 돈, 삶은 대상을 말하고, 맛은 대상에서 얻는 느낌을 말한다. 이러한 맛은 주체와 대상의 만남에서 비롯한다. 한국인은 주체가 대상을 만나면 저절로 맛을 알게 되는 것과 더불어 맛의 맞음과 맞지 않음을 가름하게 된다고 여긴다. 따라서 만남과 맛남과 맞음은 하나로 이어져서 이루어진다. 이런 까닭에 한국어에서 '만나다'와 '맛나다'와 '맞다'는 뿌리를 같이하고 있다. 즉, 옛말에서 만남은 '맛나다/맞나다/만나다'로, 맛남은 '맛나다'로, 맞음은 '맛ᄀᆞᆺ다/맛갑다'로서 모두 '맛'에 뿌리를 두고 있다.[13]

주체와 대상의 만남에서 맛이 생겨나기 때문에 어떤 것을 맛으로 느끼기 위해서는 먼저 대상으로 드러나 있어야 한다. 예컨대 '꿀'이라는 대상이 드러나 있어야 '꿀맛'이 있을 수 있고, '돈'이라는 대상이 드러나 있어야 '돈맛'이 있을 수 있다. 이때 꿀맛과 돈맛은 꿀과 돈이라는 대상에 대한 느낌인 동시에 앎을 뜻한다.[14] 한국인은 대상에 대한 이러한 앎을 바탕으로 맛을 '알고', '보고', '내고', '찾고', '들일' 수 있게 된다. 이런 까닭에 맛에는 언제나 대상에 대한 최소한의 앎이 전제되어 있다. 대상에 대한 아무런 앎도 전제되지 않은 느낌은 단지 느낌으로 그칠 뿐 맛이 되지 못한다. 이 때문에 한국인은 '맛을 느낀다'고 말하는 동시에 '맛을 안다'고 말한다.

---

13) '만나다/맛나다/맞나다'와 같은 뜻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맛ᄃᆞᆫ다'와 '맛닐다'가 있다. '맛ᄃᆞᆫ다'는 '서로 마주하여 닫는 것'을, '맛닐다'는 '서로 마주하여 이르는 것'을 뜻한다. 이를 통해 만남은 '맛'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4) 꿀맛, 즉 '꿀의 맛'은 꿀에서 얻은 느낌인 동시에 꿀이라는 대상에 대한 앎을 뜻한다. 우리는 대상에 대한 느낌을 대상에 대한 앎으로 말한다.

한국인에게 맛은 느낌과 앎이 어우러진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맛보는 일은 곧 어떤 것을 경험하는 일과 같다. 이 때문에 한국인은 흔히 '경험하다'를 '맛보다'라고 말한다. 특히 한국인은 최초의 경험을 위해서 제공하는 '볼거리', '먹거리', '일거리' 등을 '맛보기'라고 말한다.

한국인은 맛을 느끼는 단계에서 맛을 알아가는 단계로 나아가고, 맛을 알아가는 단계에서 맛을 찾아가는 단계로 나아간다. 한국인은 사람이 맛을 찾아서 대상으로 나아가는 것을 특별히 뜻이라고 말한다. 뜻이 맛에서 비롯하는 까닭에 한국어에서 맛과 뜻은 하나로 이어져 있다. 예컨대 옛말에는 맛과 뜻이 함께 쓰이는 일도 많았다. 이두에서는 '하는 뜻'을 '爲乎味'라고 쓰고, '하는 맛'으로 읽었다. 이때 '뜻'과 '味'와 '맛'은 하나로 이어져 있다. 오늘날 한국인이 '뜻'으로 새기는 '意味'라는 낱말 또한 '뜻이 맛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뜻은 '맛이 겉으로 떠올라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지향하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나무나 풀처럼 몸만 가진 주체는 몸으로 맛을 느끼지만 마음으로 맛을 알거나 뜻을 낼 수가 없다. 반면에 나비, 개, 사람처럼 몸과 마음을 아울러 가진 주체는 몸으로 맛을 느끼는 동시에 마음으로 맛을 알고 뜻을 낼 수 있다. 특히 사람은 나비나 개와 달리 생각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장을 빌려서 다양하고 현란한 방식으로 맛을 알고, 뜻을 낼 수 있다. 이로써 사람은 '미치도록 보고 싶어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는 맛'을 알고 느낄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온갖 방법을 다해서 달려가고자 하는 뜻'을 내고, 두고, 할 수 있다.

한국인은 사람의 성질이나 성격이 맛을 바탕으로 삼는다고 보아서 '性味'라는 한자 낱말을 독자적으로 만들어 사용해왔다. 한국인은 사람들이 성질이나 성격에서 다른 것은 '性의 맛', 즉 '性味'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한국인은 사람마다 성미가 다르기 때문에 성의 갈래, 즉 성깔(性+갈)이 생겨나는 것으로 생각한다.[15] 그런데 오늘날 한국의 학자들은 서구어 character를 성미나 성깔로 부르는 대신에 일본인이 번역한 성격으로 부르는데 앞장서고 있다.

한국인은 사람이 일상으로 느끼는 맛을 크게 두 가지, 즉 살맛과 죽을맛으로 나누어 말한다. 한국인은 이러한 맛을 더욱 여럿으로 나누어 밥맛, 돈맛, 손맛, 일하

15) 오늘날 한국인이 사용하는 '성격'이라는 낱말은 일본인이 서구어 'character'를 번역한 낱말을 수입한 것이다.

는 맛, 노는 맛, 자는 맛, 부리는 맛 등으로 말한다. 그리고 한국인은 사람이 어떤 것에 뜻을 두게 되는 바탕을 맛으로 설명한다. 즉 '어떤 일에 맛이 일어나는 것'을 흥미(興味), '어떤 일에 맛을 들여서 하고 싶어 하는 하는 것'을 취미(趣味), '어떤 일에 강하게 맛을 느껴 이끌리는 것'을 재미(-滋味), '문장에 담아 놓은 뜻의 맛'을 의미(意味) 등으로 말한다. 사람들은 흥미, 취미, 재미, 의미 등을 알고 느끼기 때문에 뜻을 내고, 두고, 할 수 있어서 문화를 일구며 살아갈 수 있다.

사암 정약용은 맛의 바탕인 느낌에 주목하여 생명의 본성을 嗜好, 즉 맛으로 설명하였다.[16] 그는 모든 생명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맛을 좇아서 생명을 실현해 나간다고 보았다. 맛은 생명의 주체가 느끼고, 알고, 하는 힘으로서 생명을 생명다울 수 있도록 만드는 바탕이다. 그는 파는 닭똥을 좋아하고, 꿩은 숲을 좋아하고, 노루는 평지를 좋아하는 맛을 본성으로 갖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사람은 꿩이나 노루처럼 지각에 바탕을 둔 맛을 갖고 있는 동시에 특별히 생각에 바탕을 둔 맛을 갖고 있어서 도덕, 지식, 기술, 예술 등에 대한 욕망을 계발하고 발전시켜 고도의 문화를 일굴 수 있었다. 그 결과 인간은 다른 생명체와 다른 특수한 지위에 놓이게 되었다.

정약용은 생명의 본성에 바탕을 둔 맛과 이것과 저것의 관계에 바탕을 둔 理致를 엄격히 구분하면서 성리학에서 생명의 본성을 理致로 말하는 것을 비판하였다. 느낌에 바탕을 둔 맛은 오로지 생명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인 반면에 이것과 저것의 관계에 대한 이치는 모든 사물에서 두루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사물에 두루 미치는 것으로써 생명에서만 특별히 일어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은 생명의 특성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 이는 돌멩이가 부딪히는 이치로써 사람들이 다투는 이치를 설명하는 것과 같아서 군색함을 벗어날 수 없다. 그는 생명의 본성을 맛으로 설명할 때, 생명의 주체를 한층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다고 보았다.

정약용이 사람의 본성을 맛으로 설명하는 것은 한국인이 사람의 성격이나 성질을 '性味'나 '성깔'로 말해온 것과 같은 논리이다. 맛은 생명이 삶으로 드러나는 통로와 같아서 생명체는 맛을 느낄 수 있어야 살아갈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죽고 만다. 이런 까닭에 생명에서 볼 수 있는 갖가지 것들, 즉 주체와 대상, 만남과 어울림, 느낌과 앎, 본성과 습성 등은 모두 맛으로 이어져 있다.

---

16) 정약용, 『與猶堂全書』, 제2집, 권2, <心經密驗>, '心性總義' 참조.

2. 지음과 멋

한국인이 바라는 것은 모든 것이 아름다운 상태, 즉 아름다운 몸, 아름다운 마음, 아름다운 옷, 아름다운 집, 아름다운 이웃, 아름다운 세상에 이르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인이 누리고 싶은 가장 으뜸인 맛 또한 바로 아름다움에 대한 맛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까닭에 한국인은 배고픔의 맛을 해결하고 나면 금강산의 아름다움을 구경하는 맛으로 나아가려고 한다. 한국인은 금강산의 아름다움을 맛봄으로써 개나 돼지와 달리 사람으로서 세상을 벗하게 된다.

한국인은 아름다움의 대상을 두 가지로 구분한다. 하나는 하늘의 별처럼 그냥 생겨 있는 자연 상태의 아름이고, 다른 하나는 바다의 등대처럼 사람이 지어놓은 문화 상태의 아름이다.

먼저 자연 상태의 아름은 사람의 뜻이 개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있는 대상을 말한다. 한국인이 자연 상태의 아름을 아름다운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가름하는 것은 주로 드러난 생김새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한국인은 모습, 소리, 냄새, 감촉 등으로 생김새를 느끼고 아는 과정에서 아름다움에 대한 느낌과 앎을 갖게 된다.

다음으로 문화 상태의 아름은 사람이 뜻으로 지어서 있게 된 대상을 말한다. 한국인이 문화 상태의 아름을 아름다운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가름하는 것은 주로 뜻에 담겨진 짜임새와 쓰임새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한국인은 모습, 소리, 냄새, 감촉 등으로 짜임새와 쓰임새를 느끼고 아는 과정에 아름다움에 대한 느낌과 앎을 갖게 된다. 그런데 문화 상태의 아름도 사람이 담아놓은 뜻이 흐려지거나 지워지게 되면, 서서히 자연 상태의 아름으로 옮아가게 된다.

한국인은 사람이 뜻을 바탕으로 지어놓은 문화 상태의 대상으로부터 느끼는 아름다운 맛을 특별히 멋으로 구별해서 부른다. 한국인은 사람이 지어 놓은 집, 옷, 행동, 말, 글 등을 멋의 대상으로 삼는다. 또한 한국인은 돌, 나무와 같은 자연 상태의 대상일지라도 그것을 문화로 끌어들였을 때에도 멋의 대상으로 삼는다. 예컨대 사람들은 수반에 놓인 수석이나 정원에 심어놓은 나무를 보고 멋있다고 말한다. 이런 까닭에 한국인이 욕망으로 문화를 일구는 일은 곧 뜻을 바탕으로 멋을 내거나 짓는 일이다. 한국인은 욕망의 주체로서 멋을 내거나 짓기 위해서 갖가지

일을 꾸미고 벌인다.

한국인이 욕망을 바탕으로 멋을 내거나 짓는 까닭에 욕망에 담긴 뜻의 참과 거짓에 따라 멋 또한 참과 거짓의 갈래가 생겨나게 된다. 한국인은 겉의 아름다움과 속의 아름다움이 일치하는 멋을 부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멋을 부릴 수도 있다. 한국인은 겉의 아름다움이 속과 일치할 때 '참멋-속이 차 있는 멋'으로 말하고, 일치하지 않을 때 '겉멋-겉에만 있는 멋'으로 말한다. 겉멋만을 아름답게 꾸며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거나 홀리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3. 맛대로와 마음대로와 제대로

한국인이 아름다움의 바탕으로 삼는 아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흙이나 돌처럼 그냥 생긴 그대로 있는 아름이고, 다른 하나는 소나무나 개처럼 스스로 맛대로 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아름이다. 그냥 생긴 그대로 있는 아름은 그냥 생긴 그대로 어울리는 반면에 스스로 맛대로 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아름은 힘을 바탕으로 스스로 어울리게 된다.

한국인은 스스로 맛대로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아름을 '산 것'으로 일컫는다. '산 것'은 '살아 있는 것' 또는 '살아가는 것'으로서 풀, 나무, 벌레, 짐승, 사람처럼 스스로 맛대로 할 수 있는 힘을 바탕으로 생명을 실현해나가는 주체이다. 이들이 스스로 맛대로 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면 살아가는 '주체'로부터 그냥 생긴 그대로 있는 '것'으로 돌아간다. 이 때문에 생명체는 스스로 맛대로 할 수 있는 힘, 즉 주체성을 지키고 키우기 위해서 갖은 애를 쓰게 된다.

생명체는 몸과 마음을 이루는 방식에 따라 스스로 맛대로 할 수 있는 힘에서 큰 차이가 있다. 예컨대 풀이나 나무는 대사하는 몸만 갖고 있어서 감각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까닭에 스스로 맛대로 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적다. 따라서 이들은 어울릴 때에도 주로 다른 것들에 따라서 어울리게 된다. 이들이 어울리는 것은 어떤 곳에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그러나 벌레나 짐승은 대사하는 몸과 감각하는 몸, 그리고 지각하는 마음을 아울러 갖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맛대로 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크다. 이들은 스스로 자리를 옮아가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갖가지 것들과 어울린다.

한국인은 벌레, 짐승, 사람처럼 마음을 갖고 있는 주체가 스스로 맛대로 하는 것을 '마음대로'라고 말한다. '마음대로'는 마음을 가진 주체가 마음의 힘을 바탕으로 맛대로 하는 일을 말한다. 그런데 이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지는 마음의 종류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예컨대 개구리의 마음과 개의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지가 다르며, 개구리의 경우에도 올챙이의 마음과 개구리의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지가 다르다.

사람은 생각하는 마음으로 갖가지 문장을 꾸며서 엄청난 힘을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크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일찍부터 스스로 사람을 모든 것의 우두머리, 즉 만물의 영장으로 불러왔다. 그런데 사람은 생각에서 끌어낸 마음의 힘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마음대로 하는 목표, 방향, 방법 등에 큰 차이를 낳는다. 예컨대 사람은 마음을 먹기에 따라서 참말을 하는 일과 거짓말을 하는 일, 다른 이를 위해 나의 목숨을 바치는 일과 나를 위해 다른 이의 목숨을 빼앗는 일을 할 수 있다. 또한 사람은 기술을 이용하여 깊은 땅 속이나 바다 밑에서 물자를 끌어다 쓰는 일, 지구를 벗어나 저 멀리 우주를 탐험하는 일, 심지어 자신들이 살아가는 지구의 앞날을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꾸어놓는 일조차 할 수 있다.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에 대해' 자유로울 수 있음을 말한다. 이는 사람이 생각에 따른 판단과 실천의 주체로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어울릴 수 있는 자유로움을 많이 갖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아름답게 어울리거나 그렇지 않게 어울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큼을 말한다. 이 때문에 사람이 자유로움에 이끌려 그냥 마음대로 어울리게 되면 아름다움에 이를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사람이 아름다움에 이르기 위해서는 마냥 자유로움에 이끌려 마음대로 어울리는 것을 넘어서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한국인은 사람이 아름다움에 이르기 위해서는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며, 본디의 성질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인은 본디의 성질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대로'라고 말한다. 한국인이 '제대로 하다', '제대로 되다', '제대로 이루어지다' 등으로 말할 때, '제대로'는 '저가 저를 다한 상태'로서 '아름이 본디의 성질을 다하도록 하는 일'을 말한다.[17] 따라서 한국인에게 제대로 하는 일과 제대로 되는 일은 곧 아름다움으로 나아가는 일과 같다. 이런 까닭에 한국인

은 낱낱의 아름이 나아가야 할 제대로 된 모습을 설정해 놓고 아름다움을 적극적으로 계발하고 창조하려고 한다.

한국인은 갖가지 아름들이 제대로의 상태로 나아가 아름다움에 이르는 것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본다. 하나는 '금강산이 아름답다'고 말할 때처럼 금강산이 그냥 제대로의 상태로 나아가 아름다움에 이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불국사가 아름답다'고 말할 때처럼 누군가의 뜻에 따라 불국사가 지어짐으로써 제대로의 상태로 나아가 아름다움에 이르는 것이다. 한국인은 모든 것이 제대로의 상태로 나아가 아름다움에 이르는 세상을 꿈꾸며 살아간다.

V. 어울림

1. 어울림

한국인이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은 이것과 저것의 어울림에서 비롯한다. 어울림에서 '어'는 이것과 저것으로 이루어진 짝을 말하고,[18] '울리다'는 서로 울려 있는 상태를 나타낸다. 어울림은 이것과 저것이 짝을 이루어 서로 잘 울리는 상태에 놓여 있음을 말한다. 이때 이것의 저것이 어울림은 이것과 저것이 놓여 있는 방식에 따라 두 가지의 '울힘'으로 이루어진다.[19] 하나는 이것과 저것이 서로 붙을 수 있

17) '제대로'에서 '제'는 '저이'를 말한다. 이때 '저'는 '너'가 마주하고 있는 '나-이것'을 뜻하기도 하고, '그-그것'을 뜻하기도 한다. 내가 '너'에게 '나'를 '저'로서 말하는 것은 '나'를 '그'의 상태로 대상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저'는 '내 맛에 따른 나'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를 뜻한다. 이와 함께 '저절로'는 '저'의 자격을 갖는 '나-이것' 또는 '그-그것'이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것'을 말한다.

18) '어'가 이쪽과 저쪽이 짝을 이루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은 쌍(雙)을 뜻하는 '어우러이/어우렁/어우렁이'에 잘 드러나 있다. 여기서 '어'는 짝을 말하고, '우러이/우렁/우렁이'는 짝을 이루고 있음을 말한다. 부모를 '어이'/'어시'라고 말하고 소작인을 '어울이'이라고 말하는 것에서도 '어'가 짝을 뜻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옛날에 거래에서 사용하던 어음(於音)은 '어'의 성격을 잘 드러내고 있다. 어음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돈을 주기로 약속한 표시를 가운데에 적고, 한 옆에 날짜와 채무자의 이름을 적어 수결이나 도장을 지르고 두 쪽으로 나누어 가지던 것으로 두 쪽을 맞추어 봄으로써 어음의 진위를 확인하였다. 이두 표기인 어음(於音)에서 '어(於)'는 '어중간(於中間)', '어지간(於之間)', '어언간(於焉間)'에 쓰이는 '어'와 같은 뜻을 지니고 있다.

거나 붙어 있는 경우로서 서로 감싸 안는 '울힘'을 통해서 어울림으로 나아가게 되며, 다른 하나는 이것과 저것이 떨어져 있어서 서로 붙을 수 없는 경우로서 소리나 끈 등으로 전해진 '울힘'을 통해서 어울림으로 나아가게 된다. 한국인은 이것과 저것이 서로 '울힘'의 상태에 놓여 있도록 만드는 것을 '어우르다'라고 말한다.

한국인은 이것과 저것이 잘 어울려서 맛 또는 멋있는 상태에 이르면 아름답다고 여기고, 그렇지 않으면 아름답지 않다고 여긴다. 이때 어울림과 맛/멋과 아름다움은 짜임새와 쓰임새와 생김새로서 하나로 이어져 있다. 이러한 것은 멋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한자 낱말인 '嬌'를 '얼움' 또는 '아릿다움'으로 새겨온 것에서 잘 드러나 있다. 예컨대 최세진은 『훈몽자회』에서 '嬌'를 '얼울 嬌'로, 유희춘은 『신증유합』에서 '嬌'를 '아릿다올 嬌'로 새기고 있다.[20] 최세진은 멋스러움의 생김인 어울림을 강조하여 '얼울 嬌'로 새긴 반면에 유희춘은 멋스러움의 짜임새인 아름다움을 강조하여 '아릿다울 嬌'로 새겼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생김새에 바탕을 둔 어울림과 짜임새에 바탕을 둔 아름다움이 하나로 통합되어 맛과 멋이라는 쓰임새를 만들어내고 있음을 말한다.

한국인이 이것과 저것의 어울림을 느끼는 것은 주체와 대상의 만남에서 볼 수 있는 두 개의 관계에 바탕을 두고 있다.

첫째, 주체가 대상을 만날 때, 주체는 자신과 대상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어울림에 대한 느낌을 갖는다.

주체가 대상을 만나면 서로 어울리는 관계로 들어가면서, 주체는 먼저 자신의 필요, 처지, 상태 등에 비추어 대상이 자신에게 어떻게 어울리는지에 대한 느낌을

19) 오늘날 어울림에서 말하는 '울리다'는 '울히다'에 뿌리를 두고 있다. '울히다'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데, 하나는 감싸 안음으로 이루어지는 '울히다(=擁)'이고, 다른 하나는 소리의 울림으로 이루어지는 '울히다/울이다(=鳴)'이다. 이러한 '울힘'에 뿌리를 둔 낱말로서 '울(=籬,藩)', '우리(苙, 棧, 牢)', '우리(=我, 我每, 我們, 我等)' 등이 있다.

20) 『훈몽자회』에서 '嬌'를 '얼울 嬌'로 새기는 반면에 『신증유합』에서는 '嬌'와 비슷한 '媚'를 '얼울 媚'로 새기고 있다. 결국 『훈몽자회』의 '嬌'와 『신증유합』의 '媚'가 같은 뜻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런데 『훈몽자회』에는 '媚'가 수록되어 있지 않아서 어떻게 새겼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흔히 '嬌'를 '아릿다울 嬌', '계집애 嬌'로 '媚'를 '아첨할 媚', '아양떨 媚', '아름다울 媚'로 새긴다. 이는 아름다움과 어울림의 관계에 대한 의식이 옅어졌음을 말해준다. 그리고 '아리답다'와 같은 뜻을 지닌 낱말로서 '어리롭다'라는 낱말도 사용되었다. '어리롭다'는 '얼이롭다'를 이어서 소리낸 것으로 '배필로 삼고 싶을 만큼 사랑스럽다'의 뜻을 지니고 있다.

갖는다. 이러한 느낌은 '나'라는 주체가 놓여 있는 지금의 필요, 처지, 상태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이 때문에 주체가 아무리 아름다운 대상을 만나더라도, 그것을 달갑게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 있으면 그것을 아름답게 느끼는 것이 어렵거나 불가능하다. 예컨대 사막 한가운데서 목이 말라 물을 애타게 찾는 사람은 물 이외의 것에서 어울림의 느낌을 갖는 일은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하다.

둘째, 주체가 대상을 만날 때, 주체는 대상 그 자체를 놓고 대상의 이쪽과 저쪽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어울림에 대한 느낌을 갖는다.

주체는 마주하고 있는 대상 그 자체의 생김새, 짜임새, 쓰임새 등을 놓고 이쪽과 저쪽이 어떻게 어울리는지에 대한 느낌을 갖는다. 주체는 자신의 필요, 처지, 상태보다는 자신과 대상을 아우르는 전체 속에서 대상 그 자체를 바라봄으로써 이러한 느낌을 갖는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어떤 것을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은 주로 이런 종류의 느낌에 바탕을 두고 있다. 사람들은 이런 종류의 느낌을 바탕으로 아름다움의 보편적 기준을 탐구하거나 설정하려고 한다.

주체가 대상에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은 언제나 두 개의 어울림, 즉 주체와 대상 사이에서 생겨나는 어울림과 대상 그 자체의 이쪽과 저쪽에서 생겨나는 어울림이 하나로 어우러진 상태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로 어우러져 있는 까닭에 두 개의 어울림은 '서로 다른 것이지만 결코 나누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다. 따라서 아름다움의 근거를 오로지 주체 또는 대상에서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특히 아름다움을 대상 그 자체의 어울림으로 말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우리가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은 주체와 대상의 만남에서 생겨나는 모든 어울림이 함께 해서 이루어지는 까닭에 아름다움에는 어쩔 수 없이 '제 눈에 안경'이라는 말이 따라다닌다.

한국인이 주체와 대상의 만남에서 빚어지는 모든 일을 어울림으로 이해하는 것은 모든 것이 본디 어울려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국인에게 '누리(세상—세계—우주)'는 '누리는 곳'으로서 모든 것이 서로 어울려 누리는 바탕을 뜻한다. 이런 까닭에 한국인에게 사람의 몸과 마음은 떨림을 통해서 울림으로 나아가는 어떤 것과 같다. 즉 사람의 몸과 마음은 고픔, 추위, 슬픔, 기쁨 등에 떠는 동시에 부지런, 수선, 아양, 허풍, 수다, 푼수 등을 떨어서 끊임없이 울림을 만들어낸다.

한국인은 서로 울림을 주고받음으로써 어울림 속으로 들어가 하나의 '우리=울이'를 이룬다. 그런데 한국인이 이루는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계집과 사

내가 하나로 어울리는 일이다. 한국인은 계집과 사내가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서 어울리게 되면 하나의 완전한 '우리', 즉 '하나의 마음으로 같은 몸을 이루는 것(一心同體)'으로 말한다. 사내와 계집이 어울려 가정을 이룸으로써 어른으로서 사람의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는 동시에, 자녀를 낳고 길러서 더욱 큰 우리를 만들어간다. 이런 까닭에 옛말에는 사내와 계집이 어울려 하나가 되는 것을 '어르다', '얼이다', '얼리다'라고 말하고, 이렇게 한 사람을 어른 즉 '어룬'. '얼운', '어론', '얼운 사ᄅᆞᆷ'으로 불렀다.[21]

한국인은 서로 어울리는 관계에 있는 '이것'과 '저것'을 낱낱으로 부를 때, '쪽' 또는 '조각'으로 말한다. '쪽'이나 '조각'은 하나로 어울려 있는 전체의 한 부분을 일컫는 말이다. 옛말에서 '쪽'과 '조각'은 모두 '족'으로 표기되었는데, '족'은 전체를 이루고 있는 낱낱의 부분들을 말한다. 오늘날 사람들이 '일이 하는 족족 실패로 돌아갔다'고 말할 때 족족은 일 속에 있는 낱낱의 일을 뜻한다.

한국인에게 아름은 조각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때 아름은 개체로서의 독자성을 지니는 반면에 조각들은 아름을 이루고 있는 낱낱의 부분들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지만 조각은 아름을 있게 만드는 바탕으로서 모든 것의 기초를 이룬다. 이 때문에 한국인은 모든 것의 바탕인 조각을 가장 근원적인 것으로 보았다. 옛말에서 조각은 사물이 생겨나거나 놓여 있는 기틀, 사물의 바탕을 이루는 겨를 또는 틈, 사물을 움직이는 줏대인 고동을 뜻하였다.[22]

한국인이 아름을 이쪽과 저쪽의 어울림으로 보는 것은 아름이 놓여 있는 바탕인 곳—공간과 때—시간이 이쪽과 저쪽으로 서로 어울려 있기 때문이다. 즉 한국인에게 아름이 놓여 있는 자리는 눈앞에 닿아 있는 이곳과 눈앞에서 벗어나 있는 저곳이 서로 어울려 있으며, 아름이 모습을 드러내는 때는 눈앞에 와 있는 이때와 눈앞에서 사라진 저때가 서로 어울려 있다. 이곳과 저곳이 이때에서 저때로 옮아가면서 빚어내는 곳과 때의 끊임없는 어울림을 바탕으로 아름이 자리하고 드러나게

---

21) 앞의 책, <옛말과 이두> 편 '어르다', '얼이다', '얼리다', '어룬', '얼운', '어론', '어운 사ᄅᆞᆷ' 항목 참고

22) 위의 책, <옛말과 이두> 편 '조각' 항목에 따르면 '조각'은 <옛> ① 고동. (마ᄅᆞᆫ 榮華와 辱괏 지두릿 조가기며 親과 疎왓 큰 마ᄃᆡ니 = 言語者는 榮辱之樞機며, 親疎之大節이니-<내훈>) ② 기틀, 낌새. (어딘 사ᄅᆞᆷ은 조각을 아라 일 ᄉᆡᆼ각호매 셩실게 하고 = 哲人知幾ᄒᆞ야 誠之於思ᄒᆞ고-<번역소학>) ③ 겨를, 틈. (空便空隙順便之時 = 조각<집람 자해>) 등으로 설명되어 있다.

된다. 한국인은 곳과 때의 옮아감에서 빚어지는 전체적인 어울림 속에서 빛, 소리, 냄새, 감촉 등으로 빚어지는 앞과 뒤, 아래와 위, 안과 밖, 속과 겉 등의 다름을 바탕으로 특정한 아름의 이쪽과 저쪽의 어울림에 대한 느낌을 갖는다. 한국인은 이쪽과 저쪽이 서로 잘 어울리면 아름답게, 그렇지 않으면 아름답지 않게 느낀다. 그런데 한국인이 특정한 아름에서 느끼는 어울림의 바탕에는 언제나 곳과 때의 전체적인 어울림이 깔려 있다. 이런 까닭에 한국인은 특정한 아름에서 느끼는 어울림을 곳과 때에 바탕을 둔 우주적인 어울림으로 넓혀 나가는 일이 가능할 수 있다.

한국인이 낱낱의 아름을 바탕으로 아름다움을 느끼고 아는 것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 한국인은 낱알로서 드러나 있는 아름을 바탕으로 아름다움을 느낀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하나의 구슬을 낱알로서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과 같은 경우이다. 이때 구슬은 개체성을 지닐 수 있는 최종 단계에 있다. 만약 구슬을 억지로 나눈다면 개체성을 지닐 수 없는 조각이 되고 만다. 한국인은 이러한 방식으로 나누는 것을 '쪼개다' 또는 '깨지다'라고 말한다.

둘째, 한국인은 낱알들로 이루어진 모두에서 아름다움을 느낀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예쁜 구슬들로 이루어진 목걸이를 보고서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과 같은 경우이다. 낱낱의 구슬들이 개체성을 지니고 있는 상태에서 목걸이라는 전체가 또 하나의 아름으로서 개체성을 지닌다. 따라서 목걸이가 끊어지더라도 낱낱의 구슬들은 아름으로서 개체성을 지닐 수 있다.

셋째, 한국인은 낱낱의 조각들로 이루어진 모두에서 아름다움을 느낀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날카로운 유리조각들로 이루어진 무더기를 보고서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과 같은 경우이다. 낱낱의 유리조각들은 아름답지 않지만, 그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무더기를 이루고 있음으로써 아름답게 느끼게 된다.

2. 그위와 공반

한국인이 이쪽과 저쪽의 어울림을 놓고서 생김새, 짜임새, 쓰임새 등을 따져서 아름다움을 가름하는 것은 아름이 갖고 있는 본디의 성질에 바탕을 두고 있다. 한국인은 본디의 성질을 좇아서 이쪽과 저쪽이 잘 어울릴 때 아름다운 것으로, 그렇

지 않으면 아름답지 않은 것으로 말한다.

한국인은 아름이 갖고 있는 본디의 성질은 같은 무리에 속한 모든 아름에게 같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아름을 아름답게 만드는 어울림의 기준 또한 모든 아름에게 같다. 한국인은 이러한 기준을 '그위'로 보아 '公'을 '그위 公'으로 새겼다. '그위'는 '그'와 '위'가 합쳐진 낱말로서[23] '그'는 '이'와 '저'의 상태가 아닌 '그'의 상태를 말하고, '위'는 '아래'가 아닌 '위'를 말한다.[24] '그위'는 '이 위'와 '저 위'를 넘어서 둘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그 위'의 자리를 말한다.

한국인은 '그위'에 있는 公이 共으로 드러난 것을 公共으로 말한다. 公共은 '그위 公'과 '한가지로 共'으로 이루어진 낱말로 '그위를 잣대로 모두가 하나같이 되는 것'을 뜻한다. 한국인에게 公共은 아래에 있는 '낱낱의 사람들(아름들)'이 하나같이 그위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뜻하는 동시에 그위에서 아래에 있는 '낱낱의 사람들(아름들)'을 하나처럼 이끄는 일을 뜻한다. 아래에 있는 낱낱의 아름들이 그위를 향해서 나아가는 일은 아름이 몸과 마음을 닦는 일로 나타나고, 그위에서 아래에 있는 아름들을 하나처럼 이끄는 일은 그위에서 아름들을 다스리는 일로 나타난다.

한국인은 닦음과 다스림의 잣대인 公, 즉 그위를 통해서 서로 다른 낱낱의 아름들이 하나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바로 아름이 아름다워지는 일이다. 낱낱의 아름들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지만, 아름다움으로 나아감으로써 하나에 이를 수 있다. 이 때문에 아름이 아름다움으로 나아가는 것은 바로 公共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한다. 이런 까닭에 '하나의 사람(-아름)'이면서 '사람다움(-아름다움)'을 온전하게 이룩한 사람, 즉 聖人은 모든 사람들이 한 결 같이 따라야 하는 公共의 지위를

23) '그위'는 '그+우(웋)+이'로 이루어진 낱말로 풀이할 수 있다. '그+우+이/그+웋+이'에서 '그'는 '이'와 '저'의 상대어인 '그', '우(웋)'는 '아래'의 상대어인 '우/웋', '이'는 명사형으로 만드는 토씨인 '이'를 나타낸다. '그우히'가 '그우이'로 변화하고, 다시 '그위'로 변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그+우+이'서 명사형 토씨인 '이'를 빼고, '그우'만을 갖고서 '그우실', '그우실ᄒᆞ다'로 쓰기도 하였다. 위의 책, <옛말과 이두> 편 '그위' 및 '그우실', 그우실ᄒᆞ다'와 연관된 항목 참조. 그리고 이와 비슷한 예는 몇 살을 가리키는 '나이'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다. '나이'는 본디 '낳+이'로 이루어진 낱말로서 '나+히'의 단계를 거쳐 '나+이' 또는 '나'로 쓰이게 되었다.

24) 한국인은 대상을 이, 저, 그에 따라 이것, 저것, 그것으로 구분한다. 한국인은 주체의 영역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것을 이것과 저것으로 말하고, 주체의 영역에서 벗어나 있는 것을 그것으로 말한다. 어떤 것이 그 또는 그것의 상태가 되는 것은 주체로부터 거리를 둔 상태에서 그것 자체로 있을 수 있음을 말한다. 한국인은 然을 그러한 것, 自然을 '스스로 그러한 것'으로 새겨온 것도 이 때문이다.

갖는다. 聖人은 몸소 公을 共으로 실현한 본보기로서 公共의 길잡이로 구실한다.

아름을 아름답게 만드는 어울림의 잣대인 그위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다움'에 바탕을 둔 그위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들'에 바탕을 둔 그위이다.

첫째, 다움에 바탕을 둔 그위는 낱낱의 아름이 갖고 있는 본디의 성질에서 비롯한다. 사람들은 본디의 성질을 실현하여 아름다움에 이르려는 욕망에서 그위를 설정하고 따른다. 사람들은 본디의 성질을 전제함으로써 그것을 제대로 이루려는 욕망을 그위로 설정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조선시대 선비들이 道, 理, 天理, 本性 등으로 불러온 그위가 그것이다. 선비들에게 道, 理, 天理, 本性 등은 본디의 성질인 동시에 모두가 따라야 할 公共이다. 그런데 선비들은 그위를 다움에 대한 욕망으로 보지 않고, 본래의 이치로 보았기 때문에 天理와 人欲, 公과 私를 이치와 욕망으로 엄격히 나누게 되었다. 이에 따라 그위(-公)가 아름(-私)에 뿌리를 두고 있음에도, 그위와 아름이 뿌리를 달리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어, 그위와 아름의 관계가 흐릿해지게 되었다.[25]

우리는 다움에 바탕을 둔 공공성을 '美的 公共性(esthetical publicity)'이라고 부를 수 있다. 미적 공공성은 아름이 본디의 성질을 다함으로써 '참으로 착하고(眞善)' '참으로 멋있는(眞美)' 상태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낱낱의 아름들이 제각각으로 흩어져 있는 아름됨의 상태를 넘어서 본디의 성질에 맞는 아름다움의 상태로 나아가는 것은 곧 公共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공공성은 아름이 놓여 있는 모든 곳과 때에 함께 한다. 따라서 아름이 아름다움으로 나아가는 한, 어느 한 순간도 이러한 공공성을 떠날 수 없다. 우리가 이러한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들어나가는 수양과 수행의 삶을 살아야 한다.

둘째, 우리들에 바탕을 둔 그위는 낱낱의 아름들로 엮여진 집단의 요구에서 비롯한다. 사람들은 더불어 살아가는 집단의 요구를 실현하려는 욕망에서 그위를 체제와 규범으로 제도화한다. 사람들은 제도를 전제함으로써 그것을 제대로 이루려

25) 조선후기에 선비들 가운데는 朱子가 天理와 人欲, 天理와 私心 등을 公인 이치와 私인 욕망으로 엄격히 구분한 상태에서 '이치를 보존하고 욕망을 막을 것(尊天理,遏人欲)'을 주장한 것을 비판하면서 公인 그위와 私인 아름을 욕망으로 통합하려고 시도하는 이들이 생겨났다. 예컨대 丁若鏞은 천리와 인욕이 모두 嗜好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沈大允은 천리와 인욕이 모두 利欲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嗜好나 利欲에 바탕을 둔 욕구 또는 욕망으로 사람이 사람답게 되는 바를 설명하려고 하였다.

는 욕망을 그위로 설정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조선시대 선비들이 國, 家, 禮, 法, 관습, 풍속 등으로 불러온 그위가 그것이다. 선비들은 이러한 공공성을 대표하는 기관을 국가로 생각하여 公共을 그위로 부르는 동시에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일 또한 그위로 불렀다. 즉 선비들은 공공의 일을 '그윗일', 공공의 업무를 수행하는 집을 '그윗집', 공공의 업무를 보는 사람을 '그위실하는 사람'으로 불렀다.[26]

우리는 우리들에 바탕을 둔 공공성을 '집단적 공공성(collective publicity)'이라고 부를 수 있다. 집단적 공공성은 내가 나를 넘어서 나와 너 또는 나와 너와 그로 이루어진 우리들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을 말한다. 한국인은 집단적 공공성을 통해서 나의 욕망을 우리들의 욕망에 일치시키려고 한다. 한국인은 나를 우리들에 일치시키는 일을 '착함'으로 말한다. 착하다는 것은 내가 우리들의 욕망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내가 오로지 착함만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경우에는 나라는 주체가 우리들 속으로 빨려들어 사라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나라는 주체의 사라짐을 경계하는 뜻에서 '그는 착해 빠져서 속는 줄도 모르고 있다', '그는 착해 빠져서 제 앞가림도 할 줄 모른다'와 같은 말을 하게 된다.

집단적 공공성은 우리들로써 엮여 있는 사회 영역에서만 적용된다. 이러한 공공성을 기준으로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사회적 보상과 처벌이 이루어짐으로써 우리들의 질서가 유지될 수 있다. 그런데 집단적 공공성은 우리들의 이해관계에 바탕을 두는 까닭에 개인이나 개인들이 갖고 있는 힘의 크기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때에 따라 힘을 많이 가진 개인이나 개인들은 공공에서 벗어난 것을 공공이라고 우기며 강제할 수도 있다. 특히 국가 기구를 주도하는 이들이 이러한 일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國, 家, 禮, 法, 관습, 풍속 등에 담겨진 집단적 이해관계가 공공으로 가려져서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일이 많다. 예컨대 조선시대에 평생 학문에 종사한 선비들의 경우에도 많은 이들이 주인과 노비, 적자와 서자의 관계를 천리에 바탕을 둔 공공의 발로라고 믿고 따랐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어 주인과 노비, 적자와 서자의 이해관계가 밖으로 드러나게 되자, 스스로 무식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 이러한 관계를 공공에서 벗어난 잘못된 관계로 비난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

26) 앞의 책, <옛말과 이두> 편 '그위'와 연관된 항목 참조.

집단적 공공성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합의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한국인이 우리들의 합의에 이르는 방법으로 이용해온 것으로는 신라의 '和白', 조선의 '公論' 등을 들 수 있다. 和白은 글자 그대로 '고루(和) 말하기(白)'를 뜻한다. 和白은 모임에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고루 말할 수 있도록 한 상태에서 합의를 통해서 일치에 이르는 방식을 말한다.[27] 그리고 公論은 글자 그대로 '고루(和-公) 그리고 두루(周-公) 따지기'를 말한다. 公論은 논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고루, 그리고 두루 따져서 공공의 기준, 즉 '公義'를 찾고 따르는 방식을 말한다.

한국인은 아름을 아름답게 만드는 공공성, 즉 미적 공공성을 모든 공공성의 바탕으로 삼는다. 이 때문에 한국인은 집단적 공공성도 미적 공공성에 기초하여 설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한국인은 '우리들'에 기초한 집단적 공공성이 '나(아름)'를 '나답게(아름답게)' 또는 '나(아름)를 사람답게(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미적 공공성의 일부로서 자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인은 집단적 공공성이 미적 공공성을 벗어나면 공공의 근거를 잃게 됨으로써 '나'와 '너'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일이 어려워지거나 불가능하다고 본다. 이 때문에 한국인은 집단적 공공성이 미적 공공성을 벗어났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공공성으로 여기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제대로 된 기준을 새롭게 찾아 나서려고 한다. 많은 이들이 한꺼번에 새로운 기준을 찾으려고 나서게 되면 엄청난 폭발력을 갖는 집단행동을 낳게 된다.

생활 속에서 미적 공공성과 집단적 공공성은 일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한국인은 이들이 반드시 일치해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애를 쓴다. 한국인이 이러한 일치를 위해서 애를 쓰는 일은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

첫째, 한국인은 사람이 사람다움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아름이 아름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아래서 받쳐주는 밑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생각은 '밑'과 '믿음'이라는 말에 잘 드러나 있다.

---

27) 和白에 관해서 『隋書』, <신라전>에 "其有大事, 則聚群臣, 詳議而定之", 『唐書』, <신라전>에 "事必與衆議, 號和白, 一人異則罷"라는 기록이 나온다. 화백제도가 점차 사리지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지식인들이 한문을 배우고 쓰게 되면서, 한자 낱말을 알고 쓸 수 있는 유식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무식한 사람이 서로 나누어지게 됨으로써, 소통이 수직적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모두가 고루 그리고 두루 말하기 어려운 사태가 생겨나게 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옛말에서 '밑'과 '믿음'은 '믿 底'와 '믿 本'과 '믿을 信'으로 뿌리를 같이하고 있다. 먼저 '믿 底'에 '믿'은 아름이 자리를 잡을 수 있는 밑을 말한다. 어떤 것이든 밑이 있어야 자리를 잡고, 일어설 수가 있다. 밑이 없는 것은 자리를 잡는 일이 불가능하고, 따라서 서거나 세우는 일도 불가능하다.[28] 이 때문에 밑은 어떤 것이 자리해서 설 수 있도록 만드는 존재의 바탕과 같다. 그리고 한국인은 이러한 밑을 바탕으로 '本'을 '믿 本'으로 새겨왔다. '믿 本'에서 '믿'은 아름이 아름으로 자리를 잡고 설 수 있도록 만드는 바탕을 말한다. 예컨대 밥그릇은 밑을 가짐으로써 밥그릇으로 자리를 잡고 설 수 있다. 사람들은 밑을 아래로 하여 밥그릇을 서도록 함으로써 밥그릇이 제 구실을 할 수 있도록 만든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밥그릇의 밑이 아래로 가지 않고 옆이나 위로 가게 되면 '넘어졌다', '쓰러졌다', '엎어졌다'고 말하면서 그릇으로 구실할 수 없음을 말한다.[29] 모든 것은 밑을 바탕으로 삼으면 바로 서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엎어지게 된다. 이런 이유에서 한국인이 信을 '믿을 信'으로 새겨왔다. '믿을 信'에서 '믿다'는 '믿 底'와 '믿 本'에 뿌리를 두고 있다. 사람들에게 믿음은 '아름이 아름으로 자리를 잡고 설 수 있도록 밑이 확실하게 뒷받침되어 있다'고 여김을 말한다. 사람들은 이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앉고, 눕고, 걷고, 먹고, 말하고, 함께하는 것에 대해 뜻을 내고, 두고, 할 수 있다.

한국인은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두 개의 밑, 즉 자연이 깔아놓은 밑과 사람이 문화적으로 깔아놓은 밑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두 개의 밑이 확실하게 뒷받침되어야 한다.

한국인은 사람이 문화적으로 깔아 놓은 밑을 대표하는 것을 말이라고 본다. 즉,

---

28) 한국인은 밑이 없으면 어떠한 것도 일어날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못은 끝이 뾰족하여 밑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밑과 바닥이 만나서 밑바닥을 만들 수 없어서 홀로 서는 일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까닭에 한국인은 '못하다-못과 같은 것'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말한다. '못하다'는 밑을 갖지 못한 '못'에 뿌리를 두고 있는 낱말이다. 이두에서는 '못하다'를 '못딜ᄒᆞ다'로 표기하고 있다. '못딜ᄒᆞ다'는 '못으로 디는(지는) 것'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말한다. 못은 스스로 어떤 것에 지는 것이 불가능하고, 다른 것이 못에 지는 것도 불가능하다.

29) 한국인이 '넘어지다', '쓰러지다', '엎어지다'라고 말하는 기준은 밑에 있다. 이런 까닭에 밥그릇과 같은 것은 사람이 이미 밑(:本)과 끝(:末)을 정해놓았기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엎어지는 것을 말할 수 있지만, 아무렇게나 굴러다니는 돌멩이와 같은 것은 사람이 아직 밑(:本)과 끝(:末)을을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엎어지는 것을 말할 수 없다.

한국인은 사람이 말을 밑으로 삼아 문화를 일구어 사람다움을 이루어나간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사람이 말을 말다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근본인 동시에 모든 사람이 나아가야 할 공공의 길이다. 한국인은 이러한 길을 충실히 따르는 사람을 곧고 어진 마음, 즉 良心을 가진 사람으로 말한다. 곧고 어진 마음은 속에 있는 말과 밖으로 드러내는 말을 일치시켜 말을 곧고 믿게 하여 나와 네가 하나의 우리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아름이 말을 곧고 믿게 하는 것은 우리들에 바탕을 둔 집단적 공공성을 미학적 공공성에 일치시켜나가는 일이다.

둘째, 한국인은 사람이 사람다움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아름이 아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위에서 보살피는 다스림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생각은 다스림이라는 말에 잘 드러나 있다. 옛말에서 '다스리다'는 '다솔이다'로 표기되었는데, '다솔이다'는 '다'와 '솔다'가 합쳐진 말로서 '모두 사르다' 또는 '모두 태우다'의 뜻을 지니고 있다.[30] '다솔이는 것'은 '사람이 스스로 가진 것을 살라서,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도 다 사르도록 하여, 모두 함께 잘 살도록 보살피는 일'을 말한다. 이는 하늘 높은 곳에 자리한 해나 달이 스스로 가진 것을 살라서 다른 모든 것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는 것과 같다. 따라서 한국인에게 다스리는 사람은 해나 달처럼 높은 곳에 자리하여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을 말한다. 이들이 하는 일은 곧 집단적 공공성을 미학적 공공성에 일치시키는 일이다.

한국인은 아름을 아래에서 받쳐주는 밑과 위에서 보살피는 다스림이 모두 그위에서 비롯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위는 '이 위'나 '저 위'가 아닌 '그 위'의 자리로서 '이'와 '저'를 넘어서 있다. 그위는 거룩한 감을 지닌 사람들, 즉 상감, 대감, 영감 등이 자리하여 모든 백성을 다스리는 곳이다.[31] 이들은 단순히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구실에 걸맞는 감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즉 임금은 '임금의 감', 대신은 '대신의 감', 수령은 '수령의 감'이 되어야 한다. 한국인은

30) 앞의 책, <옛말과 이두> 편 '다솔다' 항목 참고.

31) 오늘날 한국인이 '옷감', '물감', '일감', '땔감', '장군감', '신랑감'이라고 말할 때의 '감'과 '감잡다' 또는 '감잡히다'라고 말할 때의 '감'과 '감냥' 또는 '깜냥'이라고 말할 때의 '감'은 모두 뿌리를 같이하고 있다. 옛말에서는 이러한 감을 '감 資', '감 料' 등으로 새겼다. '감'은 어떤 것을 이루고 있는 바탕을 말한다. 한국인은 이러한 감에 기초하여 上監, 大監, 令監과 같은 한자 낱말을 독자적으로 만들어 사용하였다.

이들을 '그위실하는 사람'으로 불렀고, 또한 '벼슬하는 사람'으로 불렀다. 벼슬하는 사람은 그위실의 일을 하는 사람이 해, 달, 별처럼 빛나는 지위에 있음을 말한다.

한국인은 '나'에 바탕을 둔 미적 공공성과 '우리들'에 바탕을 둔 집단적 공공성의 일치를 위해서 나와 우리들의 경계를 허물어 하나의 '우리'로 통합하려고 한다. 우리는 본디 '울이'로서 '울+이=어울려 하나가 된 사람'을 뜻한다. 나와 네가 어울려 '우리'로서 하나가 되면, 나와 너를 아름답게 만드는 일은 곧 '우리'를 '우리답게 만드는 일'이 되어, 나와 너에 바탕을 둔 미적 공공성이 우리들에 바탕을 둔 집단적 공공성과 하나를 이룬다. 한국인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로 말하는 것은 미적 공공성을 통해서 더욱 큰 아름다움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 한국인은 끊임없이 우리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한국인은 그위라는 잣대를 좇아서 모두를 한가지로 하는 구체적 방법을 '고루'와 '두루'로 보았다. 즉 한국인은 이쪽과 저쪽이 고루하고 두루하는 관계에 있을 때, 서로 잘 어울려 아름다움에 이르는 것으로 보았다. 이는 고루와 두루의 쓰임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이두에서는 '고루'를 '公'으로 보아 '고루고루'를 '公反'으로 표기하고 공반, 공번, 공변으로 읽었다. '公反'에서 '公'은 고루함을, '反'은 반복함을 뜻하였다. 그런데 고루를 반복하여 고루하고 고루하게 되면 자연히 이쪽과 저쪽을 모두 아우르는 두루함에 이르는 까닭에 公反을 두루함의 뜻으로 썼다. 예컨대 1742년 영조가 당쟁을 경계하기 위해서 성균관 입구에 세운 蕩平碑에 '두루하면서 끼리하지 않는 것은 군자의 공정한 마음이고, 끼리하면서 두루하지 않는 것은 소인의 사사로운 뜻(周而弗比 乃君子之公心 比而弗周 寔小人之私意)'이라고 쓴 것이나 1864년 천주교에서 펴낸 ≪聖敎要理問答≫에서 공번에 대해 '공번되다 함은 만방과 만세에 있다는 말'이라고 한 것에서 公과 공번은 모두 고루에 바탕을 두루임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무당이 '그 위에 있는 귀신의 말'을 사람에게 전할 때, 그것을 '공반'라고 말하는 것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32] 공반은 '그 위에 있는 귀신이 내리는 말이 고루하고 두루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다.

한국인이 어울림을 통해서 아름다움에 이르는 일은 고루하고 두루함을 통해서

32) 무속에서 공반을 공수, 공사라고도 말한다. 공수는 公手 또는 公受, 공사는 公事 또는 公辭로서 '그 위에 있는 公이 스스로 하는', '그 위에 있는 公에서 받은', '그 위에 있는 公의 일', '그 위에 있는 公의 말'을 뜻하는 것으로 말할 수 있다.

이루어진다. 한국인은 고루를 '고를 調', '고를 和', '고를 均', '고를 平' 등으로 새겨왔고, 두루를 '두루 周', '두루 普', '두루 遍-徧' 등으로 새겨왔다. 한국인에게 고루함과 두루함은 調和, 和平, 均衡, 衡平, 普遍에 이르는 길로서 어울림을 알맞고 알차게 만들어 아름다움으로 나아가는 바탕이다.

한국인이 고루하고 두루하는 일은 수양과 수행을 통해 더욱 큰 사람이 되어가는 일을 말한다. 이를 위해서 한국인은 깨달음을 통해서 나의 앎을 키우는 일과 어짊을 통해서 우리와 어울리는 일을 쉼 없이 이루어, 나를 더욱 큰 사람으로 만들어 나아가야 한다. 이런 까닭에 한국인은 더욱 큰 사람으로 나아가는 바탕인 德과 仁을 '클 德', '어질 德', '클 仁', '어질 仁'으로 새겨왔다. 사람이 仁에 기초하여 덕성을 기르고 덕행을 쌓는 일은 더욱 큰 사람이 되는 일이다. 이러한 일을 충실히 하는 것은 곧 '크게 사람들을 돕는 일', 즉 弘益人間을 이루는 일이다.

VI. 맺음말

한국인에게 아름다움이 무엇을 뜻하는지 여러모로 살펴보았다. 그것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름다움은 아름이 다움의 상태에 이른 것을 말한다. 주체는 마주하고 있는 아름이 잘 어울리는 상태에 있다고 느끼면 '~이 아름답다'고 말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 아름답지 않다'고 말한다.

둘째, 아름다움은 '하고 싶음', '되고 싶음', '답고 싶음' 가운데서 답고 싶음에 이르려는 욕망을 말한다. 아름다움은 아름이 지닌 본디의 성질을 완전하게 실현한 '~다운 상태'에 대한 욕망이다.

셋째, 아름다움은 본디의 성질이 뿌리하고 있는 존재 그 자체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존재 그 자체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하지 않는 아름다움은 겉멋의 상태에 머무르고 만다.

넷째, 주체가 본디의 성질을 문장으로 완전하게 드러내는 것이 불가능한 까닭에 아름다움을 문장으로 완벽하게 규정하는 일 또한 불가능하다. 사람이 아름다움으로 나아가는 것은 열려 있는 마음으로 본디의 성질을 더욱 잘 알고 실현하려고 노

력하는 태도와 과정으로 나타난다.

다섯째, 주체가 대상에 대한 앎을 바탕으로 아름다움에 대한 느낌을 갖는다. 즉 주체는 대상을 알아보고, 알아듣고, 알아채는 일을 통해서 알아내고, 알아주고, 알아하는 과정과 결과로서 아름다움을 느낀다. 이 때문에 아름다움에는 언제나 앎과 느낌이 함께한다. 따라서 주체는 아름다움에 대한 느낌을 앎의 형식으로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담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까닭에 아름다움을 느낌과 앎 가운데 어느 하나로 환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섯째, 아름다움으로 나아가는 일은 아름이 지니고 있는 본디의 성질을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같다. 이 때문에 주체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일은 모두가 함께하는 공공성으로 나아가는 일과 같다.

일곱째, 주체가 추구하는 공공성은 다움에 대한 욕망에서 비롯하는 미적 공공성과 우리들의 사회적 요구에서 비롯하는 집단적 공공성으로 나눌 수 있다. 집단적 공공성은 미적 공공성에 바탕을 두어야 하지만 둘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사람들은 둘을 일치시켜 이상적 상태에 이르려고 애쓴다.

여덟째, 주체가 추구하는 공공성이 자리한 곳은 '그 위'이고, 공공성을 가름하는 기준은 '고루(調, 和, 均, 平)'와 '두루(周, 普, 遍)'이다. 주체는 '이 위'나 '저 위'가 아닌 '그 위'에 자리하여 고루함과 두루함을 통해서 이것과 저것을 서로 잘 어울리게 함으로써 공공성에 이를 수 있다.

참고문헌

『隨書』; 『唐書』; 『與猶堂全書』; 『聖教要理問答』.
『光州 千字文』.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영인본.
『石峯 千字文』.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영인본.
『沈大允全書』.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영인본.

유희춘, 『新增類合』.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영인본.
최봉영, 『본과 보기 문화이론』. 서울: 지식산업사, 2002.

최봉영, 『주체와 욕망』. 서울: 사계절, 2000.
최세진, 『訓蒙字會』.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영인본.
한글학회(편), 『우리말 큰 사전』. 서울: 어문각, 1992.

국 문 요 약

한국인은 어떤 것이 서로 잘 어울리는 상태에 있을 때, '아름답다'라고 말한다. 한국인은 아름다움에 이끌리는 까닭에 아름다운 얼굴, 아름다운 몸매, 아름다운 마음, 아름다운 옷, 아름다운 집,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세상 등을 바란다. 이 때문에 한국인은 바라는 바를 겉으로 드러낼 때, '아름다움', '아름다운', '아름답다', '아름답게'와 같은 낱말을 많이 사용한다. 이때 아름다움은 개체성을 뜻하는 '아름'과 '~다운 상태를 뜻하는 '다움'이 합쳐서 이루어진 낱말이다. 한국인은 아름과 다움을 바탕으로 맛, 멋, 떨림, 울림, 낱, 모두, 어울림, 그위 등을 엮어서 아름다움의 뜻을 만든다.

이 글은 아름과 다움을 바탕으로 맛, 멋, 떨림, 울림, 낱, 모두, 어울림, 그위 등이 어떻게 엮여 있는지 따져서 한국인에게 아름다움이 무엇을 뜻하는지 밝히고 있다. 이로써 아름다움은 개체인 아름이 떨림과 울림을 통해서 안팎으로 잘 어울려 있는 상태에 이르렀음을 나타내는 말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사적인 존재인 '나'가 어울림을 통해서 공적인 존재인 '우리'가 되는 일이 아름다움임을 말한다. 낱낱의 '나'가 중요한 것은 어울림을 통해서 '우리'를 이루어나가는 바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나'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반드시 '우리'로 나아가 더욱 '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한국인이 '클 德', '클 仁', '클 義'로 말해온 '큰 사람'이 되는 길이다.

◉ **투고일** : 2008. 10. 10. ◉ **게재확정일** : 2008. 11. 28.
◉ **주제어**(keyword) : **아름다움**(Beauty), **어울림**(Harmony), **맛**(Taste)